

[월간] 2015년 7월 1일(수요일)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중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權氏 紀元1086年 第 481 號 1

顯陵 (文宗大王·顯德王后 權氏) 忌辰祭 奉行

현릉 문종대왕 현덕왕후 기신제 봉행



△문종 563주기 현덕왕후 574주기 기신제봉행, 이은규 초헌관 이후원 축관



△권준철 아헌관 헌작



△현덕왕후 통과 참제원



△축합복송

지난 6월 10일 정오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내 현릉에서 국가 문화재청 후원행사로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全州李氏大同宗約院) 현릉분향회가 주관하는 조선 제5대 문종대왕과 현덕왕후 권씨의 기신제(忌辰祭)가 전주이씨 현릉분향회와 왕후의 친정인 안동권씨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후손 부정공파 파친과 안동권씨 제자손 등이 부산에서 버스 1대와 영해, 영덕, 대구, 경기 인근 등에서 부원군 후손 등 참제원 80명을 포함하여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현릉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가장 오래된 왕릉이다. 이날 제례의식은 찬자 이병학씨와 알자 이규엽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축합의식의 전향축례(傳香祝禮)로부터 모두 국공사배(鞠躬弔拜)에(禮)를 올리고, 이어 초헌관 이은규씨의 삼상향(三上香) 강신례 후 이후원축관 독축(讀祝)에 이어, 아헌관 권준철(權俊哲-부정공파 34세)씨가 헌작하였다. 중헌관에 이맹수씨가 헌작하였고, 이외에도 재량(齎銀) 권영국(權寧局)-(부정공파 38세, 능사 권중현(權重顯)-부정공파 38세) 등이 부원군 후손으로 제관으로 분방(分榜)되어 제물봉상, 진작(進爵)하였고 해설은 이호욱씨가 하였다.

조선 제5대 임금 문종대왕은 세종의 맏아들로 8세에 세자가 되어 29년 동안 세자자리에 머물면서 학문을 익히고 정치실무를 배우면서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고,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을 편찬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화차를 개량하는데 큰 힘을 쏟았으며, 특히



△ 기신제 후 부정공파 종원 기념촬영 (삼헌관, 이범수봉양회장, 권경석사무국장, 부산, 안동 부정공파 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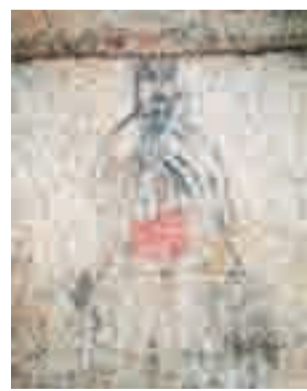


△문종,현덕왕후 능비

세종 승하 8년 전부터 섭정을 하였으니 문종의 업적이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으나 건강이 나빠져 재위 3년여 만인 39세 때 승하하였다. 현덕왕후(1418-1441)는 1437년 세자빈이 되어 안동권씨부정공파 화산부원군 권준(權準)의 딸로 1441년 단종(端宗)을 낳고 3일만에 24세에 세상을 떠나 경기도 안산에 안장되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현덕왕후로 추존되었고 능호를 소릉이라 하였다. 중종8년에 동구릉 내 현릉으로 옮겨 이장하였다. 현덕왕후의 시호는 仁孝順惠顯德王后이다. 현릉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원이강형식으로 우측 태조릉 양쪽에 있으며 좌측 언덕에 문종, 우측 언덕

에 현덕왕후릉이 있다. 세종 3년 단종 복위사건으로 성삼문등 사육신(死六臣)과 왕후의 제 권자신(權自愼)이 화를 당하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현덕왕후는 추폐되어 서인이 되고 종묘에서 신주가 철거되고 현릉(당시는 문종과 합릉)은 파헤쳐졌다. 1513년 중종 8년 현릉으로 천장되고 왕후의 신위는 다시 종묘에 봉안되었다. 제전의식을 마치고 이범수봉양회장은 인사와 내빈소개로 안동권씨대종원 권경석(權景哲)사무총장과 부원군 집안인 현관, 그리고 부산 안동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봉양회간부들을 소개한 후 참제원 기념촬영을 끝으로 급년 현릉기신제 봉행을 모두 마쳤다. <권경일 기자>

남한 유일 고려벽화묘(추밀공 4세손)발굴



고려시대 벽화가 그려진 이 묘는 도굴당한 후 신고 되어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 무덤 안에 벽화가 그려진 묘묘이 밝혀졌다. 벽화묘의 봉분은 높이 150cm 지름은 420cm이며 내부석곽은 장 방향으로 동 서 북 3면과 천장식, 큰 비석은 안쪽 면을 잘 다듬은 화강암 판석이며, 길이 285cm, 너비 128cm이다. 석곽의 동 서 북 3면의 안쪽 면과 문비석 안쪽 면에 각각 인물상이 그려져 있으며 천장식 중앙에는 성진도가 그려져 있다. 벽화의 배치를 보면 동 서벽의 안쪽에는 입구 가까이에서 북벽 쪽을 향해 26cm 간격을 두고 5명의 인물을 일렬로 그렸다. 맨 앞쪽 북벽 가까이에서 동서벽면의 인물은 정좌 상을 그렸다. 정좌의 성진도는 가로로 놓인 천장식 3배 중 중앙에 놓인 천장식의 안쪽 면에 그려졌다. 벽화는 벽면의 음각선으로 인물상의 윤곽을 그리고 그 위에 묵선을 그어 그렸으며, 코, 입술, 허리띠는 붉은 색으로 칠했다.

이 벽화 묘는 그동안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청주한씨 한상질(韓尙質 -1400)의 묘로 알려져 왔으나 1991년 문화재연구원 조사의 과정에서 고려 말의 권준(權準 창화공 1280-1352)의 묘지석이 출토되어 법적 소송을 거쳐 결국 파장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1989년 어느 날, 당시 정양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에게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도굴된 벽화묘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반도 남부에 벽화 묘는 극히 드문 것이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사건'이었다. 조상 묘를 파헤친다는 것은 정서상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도굴당한 무덤이고, 더욱이 벽화 묘이므로 발굴조사는 불가피했다. 정실장은 겨우 청주 한씨 종중의 양해를 얻었다. 91년 4월6일 발굴이 시작되었다. 당시 조사원이던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실장의 말은 "무덤을 찾는 데 4시간이나 걸렸어요.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노출된 지뢰가 보이기도 하고, 군인 3-4명이 호위하는 속에서 조사를 시작했죠. 대남방 송은 쿿전을 때리고." "묘 안에는 과연 고려시대 벽화가 보였습니다. 사방 벽면에 12명의 인물상을 배치했고, 천장에는 별자리를 그린 성진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벽과 별자리 그림은 확연했고, 동서남벽 쪽은 많이 훼손됐어요. 전형적인 고려 말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墓誌石, 贈諡昌和權公墓銘 그런데, 뒤집어질 일이 벌어졌다. 4월12일, 묘 주변의 구조를 조사하다가 무덤 바로 앞의 흙에서 묘지석(誌石)이 4편이나 확인됐다. 최맹식 조사원은 저택에 이 지석을 속сын 총남 여인숙으로 가져가 글자를 판독한다. 전서체(篆書體)로 쓰여 있다. 그냥 보아도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公墓銘)'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묘 주인공이 권씨라는 말이다. 골치 아픈 일이었다.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은 엄연히 청주한씨, 즉 한상질의 묘라고 써놓았는데 그 무덤의 주인공이 권씨라니. 정양묘 실장(조사단장)에게 유선 상으로 연락하고, 탁본을 해서 전문가에게 보이고 했다. 정확한 판독결과 묘지명의 주인공은 고려 충렬왕-충목왕 때의 문신 창화공 권준(1280-1352)이었다. 권준이 죽은 1352년 사위 흥인 박의 간정으로 당대 문인인 이인복이 지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상질'이라고 쓴 비석은 왜 서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청주한씨는 무덤 600년 가까이 엉뚱한 분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다. 지석의 파편 일부가 무덤 내 석실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발굴단은 무덤 밖에서 확인된 지석이 원래는 무덤 안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 기막힌 것은 묘지석의 주인공인 권준과 비석의 주인공인 한상질이 내 외손 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권준의 둘째 아들인 권적의 사위가 한상질의 아버지인 한수(1333-1384)였던 것이다. <3면에 계속>

釜山廣域市 宗親會 제39차 定期總會

부산광역시 종친회 제39차 정기총회

부산광역시종친회(會長 權吉相)은 지난 5월 31일 일요일 11시 전포동 소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權正達 대종원총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權哲賢 전 주일대사, 權奇宣 부산경찰청장, 朴淳燁 한국씨씨연합회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정수 부회장의 사회와 권영훈 부회장의 개회선언, 권오식 감사의 종친회기 입장,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및 선조에 대한 망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후 권 영 2.1화이자 종시남독을 하고 권길상회장의 내빈소개로 권경달 대종원총재를 위시하여 權永漢 대종원 부총재, 權景哲 事務總長, 고문, 자문위원, 權載穆 명예회장, 權重元 수석부회장, 합천지역 종친회장 및 권영갑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간사등을 소개하였다.



△부산종친회 정기총회, 원내 좌: 신임 권영호회장, 원내 우: 이임 권길상회장

이어서 權吉相 회장은 권장삼 장년회장, 권태현 청년회장에게 공로패 및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장학금 수여로 權正達 능동장학회 이사장은 부경대 권철재에게 능동장학금 일백만원을 수여하고, 權吉相 회장은 동의대 권나영에게 부산종친회장학금 오십만원을 수여하였다.

이어 權宗甲 黃田장학회 이사장은 신라대 권영현, 대광발명과학회 권재근, 덕문여고 권유진, 부산국제고 권다혜, 부산대저고 권순원에게 각각 황천장학금 삼십만원씩을 수여하였다. 權吉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대과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종친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고 아울러 오늘은 진중한 절차를 거쳐 저보다 훌륭한 후임회장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후임회장이 선출되면 성심을 다해 부산종친회가 더욱 발전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지난 8년동안 우리 종친회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남중공단소 이설 사업에 부산 종친회가 적극 참여하여 참제관 급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 종친회 회차를 현실성있게 개정·보완한 일, *종친회 원로님들이 무료로 들어앉아 종친회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諮詢委員會를 조직해서 월례회에 100% 출석률을 성사한 일, *미려한 저가 全國地域宗親會長協議會 회장을 맡아 동부서주하면서 지역종친회의 애로와 특색을 살펴 볼 수 있었던 일, *청장년회, 부녀회, 개인택시종친회 정비강화 및 단합으로 튼튼한 버팀목 확보가 된 일, *또한 등산회, 골프회 조직으로 종친간의 친화력이 강화 된 일, *시조님 행사에 본회소속 네 분의 都有司가 천망되어 임무를 잘 수행 하신 것도 감격스러운 일 이었습니다.

*특히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등에 서병수 부산시장님,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님, 권기선 부산경찰청장님, 권철현 전 주일일본대사님 등 고위관료들이 대거 참석 함으로서 우리 종친회 세가 상승을 구하던 일 등 일일이 다 매겨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종사진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自負心에 저는 8년간을 하루같이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後任 회장님의 임기에는 더 많은



△좌상: 권길상회장의 종친회기, 우상: 권영규씨가 권정달총재에게 보낸 권문청달 휘호, 좌하: 황천장학금 수여, 우하: 권문의 노래 합창



△좌상: 권정달총재의 회장단 집권, 우상: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좌하: 권철현 전 주일대사, 우하: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종사발전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하였다. 권경달 대종원총재는 부산에 오면 많은 종친들이 총회에 참여하여 단합심을 보이고 안동 권문의 자긍심을 열어주어 고마우며 권길상회장은 지난 8년간 부산종친회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한편 지역종친회장협의회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협의회를 굳건히 다져놓은 데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내빈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權五植 감사의 감사보고, 사무국장의 결산보고 및 예산보고에 따른 의안 통과 후 추대된 권영현 전형위원장 주재로 전형위에서 신임회장은 權英鎬 대한철강사장(35세 북아공)을 감사는 권정수, 권인호씨를 선출하였다. 權英鎬 신임회장은 수락인사에서 종친들의 뜻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종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종친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하였다. 2부 행사는 준비된 도시락으로 오찬을 즐기며 부회장이 권기우 변호사의 색소폰연주, 권두영 초청가수, 권영희 가수의 노래와 함께 노래자랑을 진행하였고, 1등 김치냉장고 등 8개품목 600여 개의 푸짐한 상품으로 경품잔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권영섭 사무국장>

安東權氏宗報 종사: 송조이념취합·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대사묘 연락처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영재, 권순세, 권은운
기자	권영진, 권학세, 권경일, 권법준
자문위원	권중달, 권인호, 권영현, 권영섭, 권오창, 권태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종보사(개인독자)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우체국: 종보사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010108-01-000369